

마치려니 너무 아쉽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삼국지》의 고사성어 중에 ‘오하아몽(吳下阿蒙)’과 ‘괄목상대(刮目相對)’란 말이 있어.

오나라의 왕, 손권을 섬긴 장수 가운데 여몽이라고 있잖아. 그는 무술은 뛰어났지만, 어린 시절 가난하여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 이를 안타까이 여긴 손권이 큰일을 도모하는 사람은 학문을 익힐 필요가 있다며 독서를 권했지. 하지만 여몽은 “군사 일이 너무 바빠 책 읽을 틈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대. 그러자 손권은 여몽에게 “일이 많다 하는데 나만큼 많겠는가? 학문에 정진하여 학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고, 서적을 읽으면 과거의 사례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오. 나이 많은 조조도 여전히 배움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하물며 경은 왜 노력하려 하지 않소?”

그 말을 들은 후, 여몽은 틈나는 대로 책을 읽게 되었는데.

얼마 후, 오나라의 인재 노숙이 임지로 발령받아 가는 길에 어릴 적 친구인 여몽을 찾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전과는 수준이 영 판판인 거라. 노숙이 친구의 탁월한 식견에 감탄하여 “나는 그동안 자네가 무예만 뛰어나다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학식도 대단히 깊어졌군. 예전 오나라의 그 여몽이 아니로다(非復吳下阿蒙, 비부오하아몽)”라고 하자, 여몽은 이렇게 대답했단다.

“무릇 선비란 사흘만 떨어져도 눈을 비비며 다시 대해야 할 정도(刮目相對)로 달라져야 한다더군.”

뒤에 여몽은 삼국시대 최고의 명장인 관우를 사로잡아 처형하고, 촉나라 유비에게 내주었던 형주를 되찾아 오나라의 위세를 크게 일으켰지.

‘오하아몽’이란 ‘오나라의 아둔했던 여몽’이란 뜻으로, 여몽과 같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서 ‘괄목할 상대’가 되어야 한다